

89.10.25

여행사차려 「관광안내원」 모집...논란이 경찰 1명구속

서울지검특수3부(李泰昌 부장·李勲圭검사)는 25일 윤라녀를 집안으로 속시키면 서 소개업자와 짜고 일본인관광객들을 상대로 유랑행위를 시키는 鄭泰玉씨(44·여·서울江南구驛三2동732) 등 포주 7명과 여대생 모델 지망생들을 일본인에게 소개한 張基元씨(53·대신합동대) 등 소개업자(속칭빨배끼) 12명을 구속했다.

검찰은 또 포주 鄭씨로부터 유랑행위연락을 중간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3백만원을 받은 서울북부경찰서 형사계 吳光善소경(37)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소개업자 宋吉鎬씨(53) 등 5명을 추배했다. 검찰은 이와 함께 鄭씨 등 포주들에게 고용돼있던 윤라녀 등 40명을 붙잡아 서울시립여자기숙원에 보충위탁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 검사를 의뢰했다.

검찰에 따르면 鄭씨 등 포주는 20명~40여명의 유랑녀를 고용,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유랑행위를 시키고 화대의 3분의2 정도액을 뜯는 방법으로 한 달에 3천5백여만원씩을 받아왔다는 것.

또 소개업자들은 여행사나 프리랜서를 차려 여대생과 모델지망생들 모집해홍고금浦동출판사에서 길안내를 해주었다며 유인한 일본인관광객들과 유랑행위를 하게하고 소개료를 받아왔다는 것이 다.

검찰특수에서 유랑녀들은 하루 일화 3만~10만원씩을 받았으며 이중 3분의2가량을 포주와 소개업자들에게 뜯겨온 것으로 밝혀졌다.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유랑녀들에는 모여사대학생(3년)과 모지역 미스코리아(87년선발)도 끼어있다.

포주 등 12명拘束 20, 40명씩 고용 집단宿食

女大生 1 지방美人 대표 포함 日人상대 유랑조직 적발

라녀를 비롯해는 모여사대학생(3년)과 모지역 미스코리아(87년선발)도 끼어있다.

◇유랑녀 소개업자 △張基元 △李徐煥(38·유니버시티출판사차장) △金道深(45·출판전문책배끼) △金秀男(36·) △金周順(46·동우한출판사직원) △金南輝(38·라이브라오케주인) △李萬壽(54·기린여행사사원) △韓基彦(35·한스프리저션대표) △李英敏(37·국제관광부장) △李鍾喆(36·렌터카운전사) △韓竹雄(48·) △趙建榮(40·) ◇경찰관 △吳光善